

 교육부		<h1>설명자료</h1> 2021. 10. 21.(목) 배포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	
보도일	<b>배포 즉시</b>				
담당	디지털인프라구축팀	담당자	팀장 사무관	이정석 심영우	(☎ 044-203-7056) (☎ 044-203-7051)

##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K-에듀 통합플랫폼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 촘촘하게 준비하겠습니다.

- 언론사명 : 한국경제 / 2021. 10. 21.(목)
- 제목 : 근거없이 ‘K-에듀 플랫폼 예산’ 두 배로 늘린 교육부

### 〈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〉

- K-에듀 통합플랫폼은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 등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온·오프라인 혼합 교육환경 제공과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이 가능한 미래형 교수·학습 기반 체계입니다.
  - 당초 총사업비 3,892억 원은 2020년 11월 정보화전략계획(ISP) 수립 초기 6년간(2022~2027) 예산으로 산정된 것이나, 정보화전략계획(ISP) 수립완료 및 예비타당성 조사과정에서 전문가협의체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7년간(2022~2028)의 예산 6,009억 원을 산정하였습니다.
    - 총사업비가 2,117억 원으로 증가한 주된 사유는 대규모 사용자(교사·학생 약 700만 명)의 사용량 증가에 유연한 대응하기 위해 민간클라우드\* 인프라 적용 예산 7년 치를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.
- \* 사용량에 따라 유연한 서버 자원의 확장성과 사용한 양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효율적인 비용지출을 기대할 수 있으며, 언제 어디서나 교사와 학생이 접속하여 활용할 수 있는 미래교육 인프라

- 아울러, 교육부는 정보화전략계획(ISP) 수립결과에 따라 민간클라우드 선정과 관련하여 3가지 안을 시도교육청에 제시하였고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하여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잠정 선정하였습니다.
-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(NEIS, 나이스) 예산은 순수 시스템 구축 예산(2,800억 원, 응용SW 개발 및 인프라 구축비)이며, K-에듀 통합 플랫폼의 경우 시스템 구축비는 2,205억 원으로 두 시스템 간 단순 비교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.
- K-에듀 통합플랫폼의 추가예산은 시스템 구축비 외에 민간클라우드 입차비, 운영비, 유지관리비용, 네트워크 사용료 등 구축 후 5년간 운영·유지관리 비용이 포함된 예산입니다.
-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협의체를 구성해 보다 면밀한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, K-에듀 통합플랫폼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하여 기획 단계부터 실행까지 촘촘하게 준비하여 미래교육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